

대형증권사 '1兆 클럽' 진입 눈앞 금리인하 등 증권株 상승 기대감

한투증권, 누적 영업이익 1.1兆 돌파
삼성·미래에셋증권, 연내 진입 유력
브로커리지·IB 실적 긍정적 전망

대형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로 등으로 인해 증권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조587억원을 기록하며 '1조 클럽'에 가장 먼저 진입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한 1조41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9949억원과 9145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올해 1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7355억원, 7339억원을 기록했다.

대형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올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감소한 반면 해외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5000억원으로 80% 증가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도 지난 13



ChatGPT에 의해 생성된 1조클럽에 진입하는 증권사 이미지.

일 기준 1017억4600만 달러(약 142조 5718억원)에 달했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부실 등에 따른 총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 점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정책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및 파생금융 상품 관련 운용손익이 늘었고,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건조한 투자은행(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증권 업황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에서도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와중에도 증권주를 꾸준히 매수하는 등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삼성증권 주식

10만6275주를 추가매수하면서 지분을 12.94%에서 13.06%로 늘렸다. 지난 3월 지분율은 9.56% 수준이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보유 지분율도 각각 연초 대비 2.37%포인트, 0.13%포인트 증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IB 부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동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며 증권업의 높은 이익 수준 유지가 가능하고,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증권주 하방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지난달 주식발행규모 590% 이상 급증

(전월 대비)

금감원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 7676억 기록
더본코리아 상장에 건수·규모 늘어

지난달 국내 기업들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식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59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부재했던 9월과 달리,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상장 성공하고 IPO 건수와 건당 규모가 모두 증가한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10월 중 주식 발행 규모는 7676억원으로 전월(1111억원)보다 6565억원(590.7%)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IPO 대어'로 공모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케이뱅크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이며 지난달 18일 상장을 연기했지만 9월에 비해 IPO 시장은 활기를 띠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IPO 건수는 총 4건으로 규모는 618억원에 불과했지만, 10월 IPO 건수는 총 17건으로 늘고 규모는 6400억원으로 늘었다. 전월 대비 935.4%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측은 "IPO 건수와 건당 규모

가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지난달 부재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목적 IPO가 1건(더본코리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규모도 중소기업 유상증자 건수와 규모 증가로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유상증자 규모는 1277억원으로 전월(493억원) 대비 783억원(158.8%) 증가했다. 9월에 유상증자는 2건뿐이었으며 규모도 493억원에 그쳤다.

다만 회사채 발행 규모는 30조 3224억원으로, 전월(31조 5354억원) 대비 3.8%(1조 213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5조 260억원으로 전월(3조 710억원)보다 63.7%(1조 9550억원) 늘었지만, 금융채는 22조 9171억원으로 전월(26조 7643억원)보다 14.4%(3조 8472억원)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2조 3793억원으로 전월(1조 7001억원)보다 40.0%(6792억원) 증가했다.

잔액 규모로 보면 10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83조 1306억원으로 전월 말(672조 9873억원) 대비 1.5%(10조 1433억원) 늘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 추진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연내 구성종목 특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9월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24일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증가한 만큼 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단, 이번 특별 편입에 따른 편출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번 특별 리밸런싱으로 인해 기존 구성종목이 조기에 편출되는 경우 해당기업 및 투자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투자자 피해 및 연계상품 운용상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번 리밸런싱시 특별편입만 실시하고, 편출은 내년 정기변경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변경으로 인해 구성 종목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되며, 내년도 6월 진행되는 정기 변경에 맞춰 다시 100종목으로 복귀될 예정이다. 지수 구성종목 변경일은 1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특별 편입종목 수는 미정인 상태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통했다

10兆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에
주가 전 거래일비 7.48% 올라
엔비디아 실적, 향후 흐름 좌우

삼성전자의 주가가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로 이틀 연속 급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초반 전 거래일 대비 7.48% 오르며 5만7500원까지 치솟았고 결국 3200원(5.98%) 상승한 5만6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다가 지난 14일 4만9900원에 거래를 마치고 4년 5개월만에 4만 원대까지 진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 장 마감 후 이사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향후 1년 내에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10조원 중 3조원은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망 소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보통주 5014만 4628주와 우선주 691만 2036주를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종가 기준 각 2조6827억

원, 317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른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65% 내린 17만1700원에, 한미반도체는 1.35% 하락한 8만600원에 이날 장을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회사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업황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AI(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국내 반도체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발표와 관련해 "경쟁력 약화 우려로 주가가 부진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판단하건대 금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금리, 환율 등 거시지표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메인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번 실적은 반도체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신축 착공식

코스콤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코스콤 안양센터 부지에서 '코스콤 안양 IDC 센터(新 안양 데이터센터) 신축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코스콤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 14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코스콤은 안양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최첨단 금융 데이터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새로운 데이터센터는 오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은 코스콤 윤창현 사장(아랫줄 가운데)과 코스콤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코스콤

한투운용, 바이오 종목 투자 ETF 2종 상장

ACE 글로벌빅파마 ETF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19일 새로 상장한다.

18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ACE 글로벌빅파마 ETF'는 글로벌 시장 내 대표적인 대형 제약회사(빅파마) 15개를 편입하는 상품이다. 빅파마 기업은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기반한 우수한 자본력과 높은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ACE 글로벌빅파마 ETF는 빅파마 기업 중에서도 3년 예상 매출성장률이 상위권인 종목을 선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트렌드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방법론으로, 편입 이후에는 매출 증감에 따라 지수 내 비중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솔액티브 글로벌 빅파마 지

수 프라이스 리턴(Solactive Global Big Pharma Index Price Return)' 원화환산 지수다.

ACE 일라이릴리밸류체인 ETF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일라이릴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일라이릴리는 당뇨 및 비만치료제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2023년부터 제약바이오기업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ACE 일라이릴리밸류체인 ETF는 일라이릴리와 협업하는 핵심 밸류체인 14개 기업도 편입한다. 이는 최근 빅파마 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분업화 흐름을 반영한 운용 전략이다. 일라이릴리 역시 신약 중 약 50%는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해당 ETF의 기초지수는 '솔액티브 일라이 릴리 밸류체인 프라이스 리턴 지수(Solactive Eli Lilly Value Chain Price Return Index)' 원화환산 지수이다.

/허정윤 기자